

Escalade artistique en Corée du Sud

LE MONDE | 12.09.2014 à 10h48 • Mis à jour le 12.09.2014 à 11h17 |

Par Philippe Dagen (Séoul)



La Corée du Sud était, le 4 septembre, l'épicentre mondial de l'art actuel. Avant de les retrouver à Gwangju à l'inauguration de sa dixième Biennale, on croisait à Séoul Nicholas Serota, patron de la Tate Britain et de la Tate Modern de Londres, Richard Armstrong, son homologue du Guggenheim de New York, ou Okwui Enwezor, commissaire d'innombrables expositions, mais aussi Amit Sood, directeur du Google Cultural Institute et du Google Art Project, dont il a expliqué les mérites philanthropiques à une assistance aisément séduite.

Ils sont tous venus parce que Séoul est désormais l'une des capitales d'Asie les mieux dotées en musées et fondations et la Corée du Sud l'un des deux pays majeurs de la région en la matière, l'autre étant évidemment la Chine. Ce qui se formule d'une façon moins diplomatique : le Japon peine désormais à soutenir la concurrence. Vue de Corée, cette revanche culturelle sur l'ancienne puissance coloniale n'est pas un détail.

INITIATIVE PRIVÉE DES GRANDS GROUPES

Ce résultat a été obtenu par un travail continu depuis deux décennies, l'initiative privée des grands groupes et de leurs dirigeants mécènes entraînant des décisions publiques. Le colloque qui réunissait tant de personnalités le 2 septembre se tenait au Leeum, musée du groupe Samsung. Inauguré en 2004, il se compose de trois volumes, conçus par Mario Botta, Rem Koolhaas et Jean Nouvel. A sa collection ne manque aucun des artistes vedettes du moment, Basquiat et Hirst, Kiefer et McCarthy. Mais le musée le plus récemment inauguré, le 11 décembre 2013,...

한국에서 예술을 오르다

지난 9월 4일 세계 예술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다. 제 10회 광주 비엔날레에 가기 전, 우린 서울에서 테이트 브리튼과 런던 테이트 모던 관장인 니콜라스 세로타,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장인 리차드 암스트롱, 수없이 많은 전시회의 전시 감독을 역임한 오쿠이 앤워저 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언변으로 자선 사업의 장점에 대해 설명해 준 아미트 수드 구글 문화 연구소장 겸 구글 아트 프로젝트 담당자를 만났다.

이들이 모두 모인 이유는 서울이 아시아 여러 나라의 수도 중에서 박물관과 예술 재단을 가장 잘 갖춘 도시 중 하나 일 뿐만 아니라 한국이 중국과 더불어 예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아시아 국가이기 때문이다. 외교적인 표현은 아니겠지만, 일본은 이제 이 분야에서 경쟁에 뒤쳐지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전에 자국을 식민 통치를 했던 강대국을 문화 분야에서 역전해 앞서나간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작은 사건 정도에 그치지 않는 일이다.

대기업들의 주도적 노력

이는 지난 20년간 대기업과 기업 총수들이 주도적으로 시작하여 공공 분야에까지 확산된 메세나 활동이 계속 이어져 왔기에 얻어진 결과이다. 지난 9월 2일 삼성 그룹의 박물관인 리움 미술관에서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2004년 개관한 리움 미술관은 3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건물은 마리오 보타, 렘 쿨하스 그리고 장 누벨이 설계했다. 미술관은 바스키아, 허스트, 키에퍼, 맥카티 등 요즘 인기있는 모든 스타 작가들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최근에 문을 연 미술관은 지난 2013년 12월 11일에 개관한 국립 현대 미술관 서울관 (MMCA)이다. 원래 병원이었다가 군 지휘 본부로 사용되던 곳이 거대한 규모의 보다 밝은 목적의 건물로 변신한 것이다.

국립 현대 미술관 서울관은 상징적인 곳에 위치하고 있다. 훌륭한 현대 갤러리와 가장 활동적인 국제 갤러리가 이미 자리하고 있으며 오래된 집과 정원 사이에 현대적인 건축 형식의 새로운 갤러리들이 들어서면서 그 범위가 확장 일로에 있는 갤러리 집중 지역의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다. 센터의 건축과 더불어 마레 지역에 갤러리들이 몰려드는 효과를 거둔 풍피두 센터와는 반대로 한국에서는 갤러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 현대 미술관 서울관의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역사의 축

국립 현대 미술관 서울관을 이곳에 설치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 9월 1일 저녁엔 두 곳에서 전시 전야제가 열렸다. 첫 번째는 '유령, 스파이, 할머니'라는 주제로 42명의 세계 작가들이 참여한 서울 예술 박물관 (SeMA)에서 열린 서울 미디어 시티 비엔날레 전야제였다. 작품 간 기복이 심하고 다소 잡다하게 섞인 전시 작품들이 모두 공감을 일으킨 건 아니었지만 도발적 작품을 선보이는 일본 그룹 제로 디멘션의 전시 공간과 무당을 소재로 한 김수만 사진 작가의 작품 전시장은 비엔날레에 참석한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다. 두 번째 전야제는 단색화 화가들의 대규모 전시를 기획한 국제 갤러리에서 열렸다. 단색화 사조는 1970년 초 일어난 운동으로 경험적 오브제에 흰색 단색, 회화적 흔적과 질감을 더한 작품 활동을 한 화가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참여 작가 중 가장 유명한 작가는 금년 여름(11월 2일까지) 베르사이유 정원에 조각 작품이 전시된 이우환일 것이다.

역사적인 이해 관계나 전시된 작품의 질을 떠나 이 전시는 해외에 한국 예술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고심 끝에 크게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준비한 문화 정책 중 하나의 축인 '역사의 축'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점이 많다. 이는 미국의 미니멀리즘, 이태리의 아르테 포베라 또는 BMPT (뷔렌, 모세, 파르망티에, 토로니) 그리고 프랑스의 쉬포르 / 쉬르파스처럼 한국 아티스트들이 스스로 기반을 세운 컨템퍼러리한 전위 작품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일이다. 앞서 언급한 사조들과 비견될 수 있는 컨템퍼러리 미술이지만 동시에 자율적이며 미국이나 유럽의 영

향을 받지 않는 한국적인 컨템퍼러리 미술이다.

자연, 바람, 돌과의 관계

국립 현대 미술관 서울관이 개최한 'Korean Beauty' 전시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단색화 작가들과 보다 젊은 작가들을 만나게 함으로써, 전시회 타이틀이 말하듯, 자연과, 바람 그리고 돌과의 관계에서 영감을 얻는 한국적 예술의 특색을 확실히 보여주고자 노력한다. 문화적 이해와 동화를 과도하게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진솔하다는 점에서 가치있는 전시라 하겠다. 전시의 주제가 예술적 분석이라기보단 슬로건에 가깝기 때문이다.

정책의 또 다른 축은 당연히 젊은 설치 예술 작가들을 알리는 데 있다. 국립 현대 미술관 서울관 한 쪽에는 1962년에 출생한 서도호 작가의 웅장한 푸른 천으로 된 집이 설치되어 있다. 1975년에 태어난 김성환 작가의 작품은 1995년 개관한 사립 미술관인 아트 선재 센터에서 전시되고 있다. 비디오, 음향 그리고 거울을 조합한 작품 활동을 특징으로 하는 김성환 작가는 또 다른 중요한 설치 예술 전시 행사라 할 수 있는 광주 비엔날레에도 참석하고 있다. 이제 김성환 작가는 한국을 너머 세계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우환이 이미 오래 전부터 국제 무대의 선두 자리에 위치해 있는 반면 한국의 다른 단색화 작가들은 아직까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다만 이들은 지난 1월 뉴욕의 한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으며 이번 달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다시 전시를 벌인다. 이 중 한 명인 박서보는 금년 겨울 암마뉴엘 폐로팅이 운영하는 파리의 갤러리에서 전시를 할 것이다. 박서보의 기하학적 추상 컨셉은 그의 작품을 좋아하는 한 사람을 너머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할 것이다.